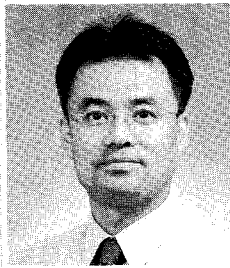


전염성 후두기관염(ILT) 안심해도 되는가?



손 영 호
(이천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백신과 소독 등의 활동에 의해서 질병이 근절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백신에 의해서 질병이 근절되는 예를 찾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지속

적인 백신활동에 의해 우리는 특정 질병들을 근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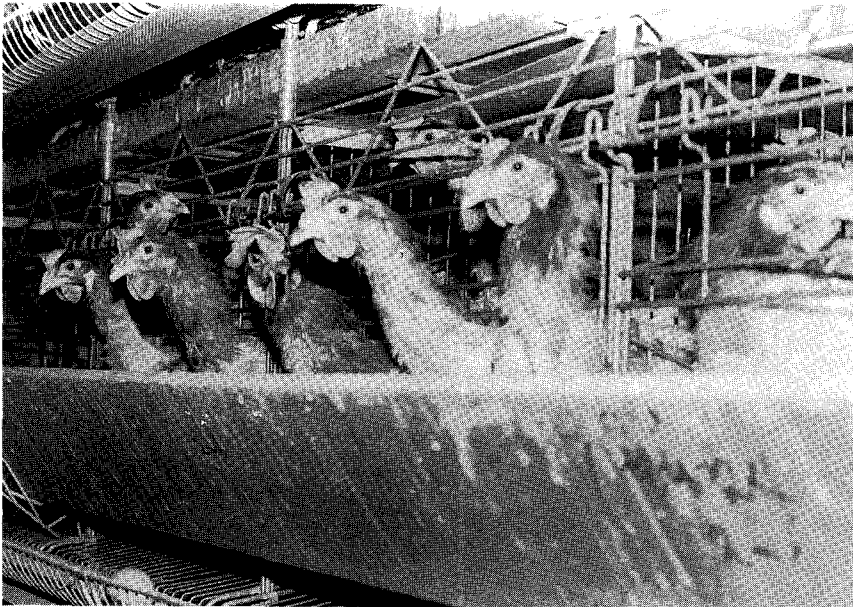
이것은 어떤 질병이 다시는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한 백신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개별 농장이나 일정한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특정한 국가 기관에서의 공식적인 연구와 검토,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을 공표하기 전에는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간 발생했던 몇몇 질병들 중에서 최근에 발생이 뜸하다고 해서 백신을 게을리하거나 생략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실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으며, 언제 다시 질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위험에 처하게 될 지 모를 일이다.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의 경우를 보자. 혹자는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이 최근 발생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고, 마치 ILT가 거의 근절되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여, 백신을 실시하지 않거나 때로는 생략하는 일이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백신을 포함한 방역활동 등을 점검하고, 질병의 특징을 알아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발생할 지 모를 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한다.

1. 병인체

Herpes virus의 일종인 전염성 후두기관염 바이러스(ILTV)에 의해 주로 닭에만 발생하며, 혈청형은 하나뿐이지만 바이러스주



호전되나 수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질병의 심한 정도는 감염된 바이러스주(strain)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된다.

급성형은 기관의 출혈을 동반하는 급성 손상으로 코와 입에서 혈담을 배출하여 이환계 주위의 벽이나 케이지 주위에 피가 묻

(strain)에 따라 병원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며 1925년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양계산업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감보로병(IBD)처럼 농장에 일단 감염되면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발생은 1982년 2월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으며, 1983년까지 그 피해는 막대했다. 필자도 최근 몇 농가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닭이 만성형 ILT로 의심되는 질환(사진1)으로 폐사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농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

2. 증상

질병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ILTV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장기는 기관(trachea)이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개구호흡, 습성호흡 등이며 일단 발병되면 2주후 증상이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막염을 동반하며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질식으로 인해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질병과 복합감염시 증상이 심해지며, 특히 MG(Mycoplasma gallisepticum)과 혼합감염시 증상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 이환율(罹患率)은 100%에 이르며 폐사율(斃死率)은 5~30%정도이다.

만성형은 후두와 기관에 치즈양 물질이 쌓여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이 경우 약추의 돌연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폐사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군의 입식, 열악한 환기, 좁은 공간과 질이 나쁜 사료의 급여, 온도변화 등의 스트레스는 증상을 악화시켜 심한 폐사를 동반할 수 있다.

산란중인 닭에 감염되면 사료섭취가 감소하여 산란율도 저하되며 갈색계에서 탈색란(White-egg)을 생산하는 등 품질저하의 문

제도 발생할 수 있다.

3. 전 파

농장내에서의 질병의 전파는 닭과 닭의 직접적인 접촉, 이환계의 분비물, 계란 운반기, 작업자, 작업도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파속도는 매우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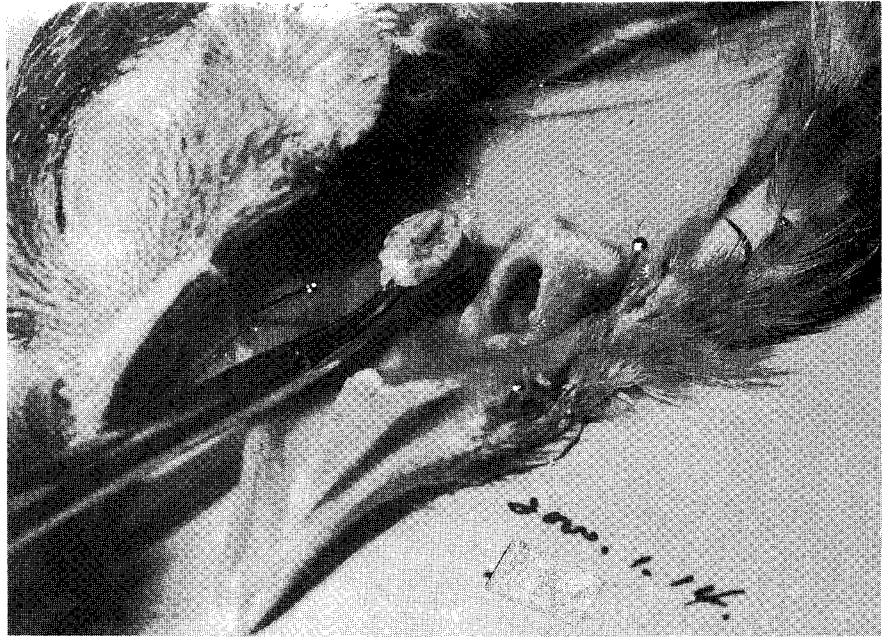
외부에서 농장을 출입하는 자동차나 사람에 의해 농장간

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ILT 발병 후 회복된 닭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수개월 동안 배출하는 보균체가 된다. 따라서 닭을 구입할 때 ILT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4. 치료 및 예방

ILT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ILT는 전파속도가 느리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곳으로부터 백신을 접종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과거에 발생 경험이 있는 농장도 백신접종으로 ILT의 발생을 막고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백신접종방법으로는 생독백신을 점안접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음수법이나 분무



△ILT에 감염되면 코와 입에서 혈담을 배출하며 결막염을 동반, 질식으로 인한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이 방법상 용이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으로는 닭에게 고르게 면역을 부여할 수 없다. 면역이 낮게 형성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고 과도하게 접종되면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난다.

또 너무 어린일령에 백신을 실시하면 모체 이행항체의 간섭현상으로 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접종일령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ILT 생독백신의 접종일령은 5주령경에 1차백신, 12~13주령에 2차백신을 각각 점안으로 실시하여야 산란기간중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5. Biosecurity

양계산업은 부화부터 도태까지의 모든 과

정이 극도로 분화된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그 긴 과정속에 질병은 생산성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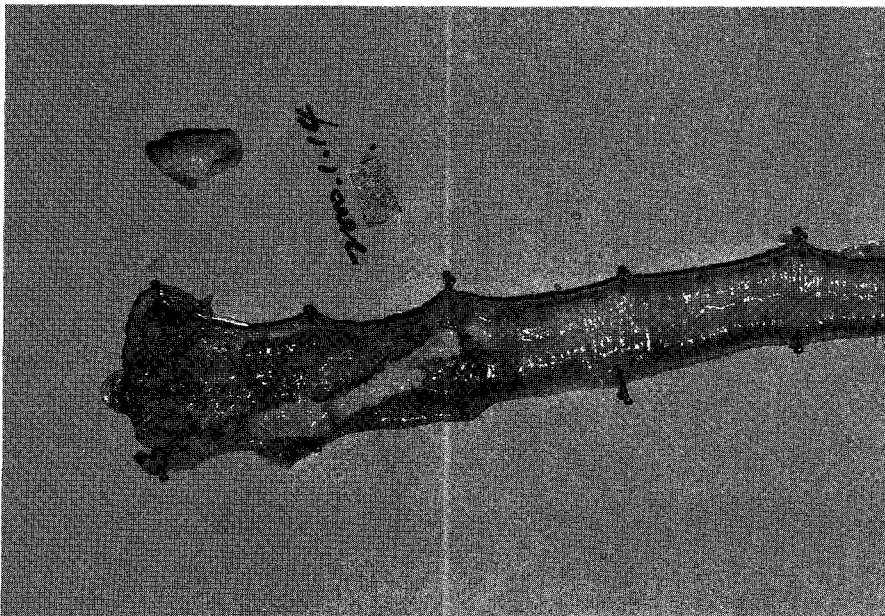
우리는 그 질병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격리사육, 철저한 소독, 사람과 동물 등의 출입 제한, 환경조절, 백신접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Biosecurity"라고 한다. 즉 농장내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Biosecurity에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Biosecurity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방문객의 접근을 최소화한다.
- 신발, 작업복, 작업모 등 방역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한다.
- 손 씻는 곳과 소독기를 준비한다.
- 계란운반기, 집란기 등 모든 기구를 청결히 하고 자주 소독한다.
- 자동차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특히 바퀴와 그 주위 그리고 운전자와 운전석의 소독

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 평판이 좋은 농장에서 적절한 일령이면서 동일 일령의 닭을 구입한다. 접종일령을 초과한 경우는 곤란함.
 - 정기적인 혈액검사, 폐사계에 대한 부검 등 일상적인 진단과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 백신접종을 철저히 한다.
 - 계사내 소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운영한다. 소독제 선택과 소독 회수는 전문 수의사와 상의한다.
 - 노계를 도태할 시기가 농장내 질병발생의 최호기이며 최적기임을 알고 차량과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농장내의 구서(驅鼠), 구충(驅蟲)은 방역의 기본조건이자 필수조건임을 명심한다.
 - 계사내 조류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 Biosecurity 방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재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IT



ΔILT바이러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장기는 기관이다.

가 과거에 발생되었거나 현재 발병 중이라면 다음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 백신한 닭과 백신하지 않은 닭을 혼합사육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신하지 않은 닭이 감염되어 보균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발병계군을 격리 또는 도태시킨

다.

- 닭을 입추할 경우 ILT백신을 접종한 닭을 입추한다.

- ILT가 발생한 계사는 3주이상 비우고 철저히 소독한다.

- 필요없이 다른 농장을 방문하지 않는다.

- ILT가 발생하였다면 발병하지 않은 계군부터 백신을 접종한다.

Biosecurity가 철저하다면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농장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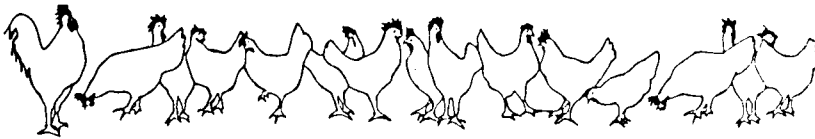
6. 결론

질병에 대해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모든 방역활동, 즉 Biosecurity를 철저

히 수행하는 것만이 농장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만일 최근에 주위에서 ILT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ILT에 대한 백신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Biosecurity에 역행하는 최고의 실수가 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본인 뿐 아니라 이웃 농가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생각임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백신접종만이 우리나라에서 특정 질병을 근절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만일 단 하나의 농장도 빠짐없이 모든 농장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내에 경협할 수도 있는 일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 ~ 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 ~ 2